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김한모.바오로 916-207-4806
 본당부제:김병준.바오로 217-352-2487
 본당부제:김상돈.도밍고 916-580-8519
 사목회장:이주순.울리오 530-906-0262
 연령회장:고원석.바오로 916-813-4440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916-368-9204 Fax:916-368-83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탈출기 20:1-17	제2독서	코린토1서 1:22-25	복음	요한 2:13-25
--------	------	-------------	------	---------------	----	------------

◎말씀 < 마음의 번민은 하느님의 성전정화 때문 >

내 안에 계신 하느님은 내가 변화해서 새로운 세상에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낡은 삶의 방식을 무너트리고 새로운 질서를 잡으시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갈등과 번민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낡은 삶을 유지하려는 마음과 그것을 부수려는 하느님의 마음이 부딪혀서 마음속에 대 격변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낡은 삶을 부수고 새로운 질서를 잡아주시려는 하느님의 작용을 잘 견 디도록 도와주는 것이 심리치료의 관건입니다. 그것을 잘 견뎌낸 사람은 증상의 치유뿐만 아니라 자신 안에 하느님이 계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 치유과정을 통해 인간 개개인이 한 사람 도 예외 없이 하느님이 그 안에 살고 계시는 성전 이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도 당신 몸을 성전이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자 역시 하느님 이 거처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느님은 나를 감시하 고 단속하기 위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생명과 힘을 주시기 위해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평화를 주시기 위 해 거기에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하느님의 힘을 느끼지 못하고 늘 갈등과 번민 속에 사는 걸까요? 내 안에 계신 하느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세속적인 가치에만 매달려 살다 보니 생긴 죄와 마음의 상처들, 그리고 영적인 삶의 가 치를 모르고 살았던 무지와 어리석음이 하느님과 나 사이를 가로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느님은 그런 장애물들을 성전 안에 두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셨던 것처럼 채찍을 휘둘러서 쫓아내시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성전에서 잡상인과 환전꾼을 쫓아내시기 위해 채찍을 휘두르시는 예수님은 죄, 마음의 상처, 무지, 어리석음으로 가득 찬 무질서 를 타파하고 새로운 질서를 잡아주시는 내 안에 계신 하느님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 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느님의 작용은 우리가 기 대하는 것과는 달리 먼저 마음의 고통과 번민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하느님이 주 시는 마음의 평화를 원한다면 내 안에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하느님을 먼저 견뎌내야 합니다.

일 자	전 레 력	미사시간	우리들 정성(지난주)	
3월6일(화)	사순 제3주간 화요일	오후7시30분	교 무 금 주일헌금	\$ 2,010.00 \$ 1,210.00
3월7일(수)	사순 제3주간 수요일	오전7시30분	성소후원 사회복지	\$ 123.00 \$ 82.00
3월8일(목)	사순 제3주간 목요일	오후7시30분	성 물 방 기 부 금	\$ 37.00 \$ 0.00
3월9일(금)	사순 제3주간 금요일	구역미사(2구역)	기타수입 사제관건축	\$ 0.00 \$ 0.00
3월10일(토)	사순 제3주간 토요일	오후7시30분	합 계	\$ 3,462.00
3월11일(일)	사순 제4주일	오전 9시 오전 11시	미사참례자	아동: 34명 성인: 199명

교무금봉헌자 최준규.국부자(1-4월)황호민.현창균.지영숙(2-3월)지동순(1-2월)박종윤(1월)김평옥.박재례. 고정하.김형진(2월)

◎신앙생활(본당의 새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집.동네의 샘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느님 나라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 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르 1,15) 인류를 구원 하시고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서는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하느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 생활에서부터 하느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하느님의 정의와 평화, 사랑과 자비가 실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러한 하느님 나라가 당신 자신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을 가르치셨고 사람들이 삶의 자세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도록 이끄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 나라의 정의가 실현됨으로써 가난하고 힘없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였고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 때문에 억압받고 핍박받는 이들 또한 하느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짐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알려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시고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는 바로 하느님의 구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또한 당시 사회에서 죄인으로 취급하여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던 소경이나 나병환자, 세리 등을 가까이 부르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대화를 나누시고 기꺼이 식사도 하셨는데 이것은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하느님 나라의 평화로운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3,34)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만

으로는 부족하므로 그 근본정신인 사랑의 정신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 나라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심판의 잣대는 그저 나쁜 짓을 안 하고 정직하게 살았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랑과 자비를 실천했는가에 달려 있음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를 실현하는 일에 동참하기를 바라셨고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일에 협력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며 세상이 악에 물들어 썩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하여야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드러냄으로써 어둠을 밝혀주는 빛의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정의를 실천하면서 하느님 나라의 참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도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는데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윤안나/황애다/원정은.카타리나/성낙순.안나 백정심.막달레나/전기례.베레나/김나미.로사 김옥륜.세실리아/추소연.세실리아/엄안드레아 김숙자.수산나/서향자.글라라/김초지.마리아 황순이.마리아/최이주.베아따/이규청.제노비아 신용경.그레고리오/엄모니카/배미성.오틸리아 박모란.글라라/김광진.요한/원헤리나.헬레나

◎오늘의 미사지향(미사신청;박울리아.916-990-6531/박프란치스코.909-573-5322)◎

구분	지향	봉헌자	구분	지향	봉헌자
연	김덕빈.데레사의 영혼	송돈희.요셉	연	지세중.요한의 영혼	지.세실리아가족
연	손영숙.로사의 영혼	박재례.마리아			

◎ 희망 ◎

“가르친다는 것은 다만 희망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프랑스의 한 시인은 말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이미 2천년전에 하신 분이 있다. 예수님이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다.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희망이다. (강은교 클라라.시인/김복태 사도요한.화가)



간
장
종
지

(광고) 본당의 쇄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 집.동네의 샘입니다.

주보제작;박봉준.프란치스코 살레시오(909- 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p>신세계여행사 148 Grand Ave.Oakland, CA 94612 Raymond(베로니카) (510)451-7487 688-0157</p>	<p>Kim' s Pro Handymen 주택수리일체.무료견적 수리비용 절감 5810 Shadow Creek Rd. Sacramento CA,95841 김광열 (510)789-7876 kimkwangyeo152@gmail.com</p>	<p>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 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CA 95827 (916)362-3300 (916)475-3770:cell</p>	<p>에어컨 수리 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율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p>
---	--	---	---

<p>SNOW WHITE DENTAL 6416 Tupelo Dr.Cirtus Heights,CA 95621 장원석(바오로) (916)729-1441 (916)230-6768;한국어</p>	<p>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 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204-8878</p>	<p>서은미 부동산 RealtyOneGroup 2335 American River Dr. Ste.100 Sacramento, CA 95825 서은미(안나) (916)600-1936</p>	<p>Hair Story Salon 9723 Folsom Blvd. #B Sacramento,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클라라) (916)342-7072</p>
---	--	--	--

<p>메리서 부동산 · 용자 · 재정서비스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om SACRAMENTO . DUBLIN .LA K-TOWN</p>	<p>1.2.3 Auto Body정비 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p>	<p>JIMMY KIM GOLF SCHOOL ~Sunrise Golf Course~ 6412 Sunrise Blvd. Citrus Heights CA 95610 Jimmy Kim(안토니오) (916)605-6974</p>
--	---	---

<p>최병엽공인회계사 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Folsom Blvd.suit P Sacramento,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p>	<p>Bad Credit? Call For Free Credit Titan Credit 1911 Douglas Blvd. Suite 85-416 Roseville CA 95661 Larry Chiarella,Esq (916)709-7777 rarry@titancredit.com</p>	<p>Samurai Sushi 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p>	<p>Bradshaw Optometry 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916)361-2020 (916)361-0433; fax</p>
---	--	---	--

--	--	--	--

